8년 연구(The Eight Year Study)

: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사례

「8년 연구(The Eight Year Study)」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협회(PEA)가 중심이 되어 1933년부터 1941년까지 8년간 진보주의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행한 교육연구를 말한다. 고등학교에서 '경험중심의 교과과정'의 실험 및 대상이 된 학생들의 대학진학 후 성적 추적 등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유형을 변혁시켜 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목표의 명확화, 학생 자신의 주체적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평가기술의 개발이 연구과제로 제시되었다.

현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성과가 초등학교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반해, 중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등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실질적 개선에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전반기 교육과정 논의의 교육적 실효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된 것이 바로 8년 연구였다. 미국에서 1933년부터 1941년까지 고교과정에서 3년간, 대학과정에서 5년간 연구된 8년 연구는 20세기에 있었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 현장 실험연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8년 연구는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연구가 무르익은 발판이 되었고,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교육이 중등학교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으로부터 교육의 주권을 회복한 전기를 이루는 계기도 되었다.

1.「8년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대부분 학생들은 6학년 이전에 중도 탈락했고, 단지 10%의 학생만이 고교에 진학했으며, 동일 연령층의 3%만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가 좋아지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대공황으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지자 1930년대에는 고교진학률이 50%까지 급상승했다. 교육받는 학생인구 구성이 달라진 것이다.

이때 교육과정을 지배한 것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다. 1918년 미국중등교육협회가 중등교육의 대 목표를 발표한 이루 점점 더 실제적이고 직업적인 교과목들이 학교에 들어왔으나, 극단적인 아동중심적 교육과정이론을 포함하여 개인중심의 교육과정이론은 이해되기 어려웠고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30년 4월 워싱톤에서 열린 진보교육협회(Progressive Education Association : PEA)의 연차 학술회의를 계기로 진보주의 교육자들은 이 때 당시 지배적이었던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도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의 한결같은 끝은 중등학교가 교장, 교사, 학부모의 바람대로 변화하기는 해야 하겠으나, 그 가장 큰 장애는 대학입시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단위를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릇이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학교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교육관행을 바꾸고 싶어도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제쳐두는 위험부담을 떠안기란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대학과 중등학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진보교육협회는 '중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 중등학교의 협조방안 모색위원회'를 조직하여 20여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1년간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933년 가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8년 연구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교육을 중등학교에서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연계로서, 초등학교에서와 같은 진보주의 교육을 중등학교에서 시행해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둘째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로서 진보주의의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생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300개 이상의 주요 대학을 참여시켜 8년 연구에 참여한 29개 실험학교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실험학교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험할 용의가 있어야 했고, 이런 취지에 따라 신청한 250여개 학교 중에서 공사립과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고교 교육과정 개혁의지가 있는 학교로서 지역에 개혁의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학교를 위주로 총 29개의 학교와 학교구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실험학교의 교육과정

8년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유형의 교육과정이 실험학교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험학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전통적 교과목을 약간 수정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 광역 교육과정을 개발한 학교, 전체 문화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학교, 진로와 직업준비중심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 중핵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 등이 포함된다.

전체학교가 실험학교로 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초기 각 학교는 1개의 반이 실험

반이 되어 8년 연구에 참여했으며, 그 반들은 주로 전체 학생의 30% 이하였다. 그들의 교실은 따로 배치되었고 두 명의 중핵 교사들이 하루 1~3시간 정도 실험반을 지도하였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덴버(Denver) 시의 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표는 [표 1]과 같다.

[표 1] 덴버(Denver) 시 이스트 고교의 1938학년도 시간표

교시	월	화	수	목	금
1-4	전교 공통 수업 (일반 학급과 동일한 수업)				
5	특별 관심반	자유독서	특별관심반	집단상담	특별관심반
6	중핵과정				
7	교직원 연수	특별교실	특별교실	개인상담	특별교실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첫째 기준은 성인사회의 요구이고, 둘째 기준은 청소년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 반영정도는 학교와 교사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8년이 지난 뒤 교육과정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의도한 대로 교육과정은 개정되었고, 학생들은 진로안내를 받아 나름대로의 과정을 꾸려나갔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는 그들이 어른이 되어 직면할 사안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8년 연구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의 강조점이 '교과'에서 '학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학생들이 교사를 도와 교육과정의 결정에 참여하고 학교의 재편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3.「8년 연구」의 평가방법

1933년에 실험학교들은 교육과정 개정의 임무를 맡았으며, 이를 위한 평가단이 1934년에 조직되었다. 각 학교는 교육과정 조직과 절차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였다. 평가위원회의 조사감독은 타일러(Tyler)가 맡았는데, 그는 처음부터 교육의 과학적 연구를 옹호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그의 선택을 적절하게 하였고, 연구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목표의 분석이 강조되었다. 참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10개의 주요 목표를 검증하였다. 그 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에 본부를 둔 평가위원회는 진보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는 특색 있는 목표들인 사회적 민감성, 미학의 감상, 신체적인 건강, 인생철학 정립, 그리고 보편적인 흥미의 확장 등을 내포한 것이었다.

7년의 과정 동안 평가위원회는 실험을 통해 정제되고 반복하여 엄밀히 심사된 200가지의 테스트를 개발하였다. 10년 후 타일러는 그의 저서『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원리』(1949)에서 그 과정을 공식화하였다.

4.「8년 연구」의 분석결과

1936년 여름 조사연구진은 위원회 위원, 고교 교장과 교사, 대학 학장과 교수, 졸업생 등과 함께 모임을 갖고 실험학교 출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지적 능력, 문화적 발달, 실제적 능력, 생활 철학, 인격 특성, 감성의 균형, 사회적 적응, 사회문제에 대한 감수성, 신체건강 등 아홉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의 출신학생들과 비교하여 진보주의 교육과정(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험학교 출신학생들은 학문적 성취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았고 개인적·사회적 발달 상태는 훨씬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과정, 수업, 교사-학생 관계 등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전통적 교육의 관행을 바꾼 학교의 졸업생들보다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 교육과정보다 진보적 교육과정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학교와 실험학교 출신학생들 1,475쌍을 상호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실험집단 학생들은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 총점의 평균평점이 약간 높았다.
② 외국어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교과에서 평균평점 이상을 받았다.
③ 비교집단 학생들만큼이나 학문적 분야의 전공자가 많았다.
④ 낙제나 유급횟수는 양 집단 학생들이 비슷하였다.
⑤ 해마다 하는 성적우수자 선발에 뽑히는 숫자가 약간 많았다.
⑥ 지적 호기심이나 충동력이 좀 더 강하였다.
⑦ 훨씬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⑧ 교육의 의의에 대해 분명하고 잘 정리된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대학 초반기에 방황이 적었다.
⑨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수했다.
⑩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차이가 없었다.
⑪ 양 집단 모두 똑같은 적응문제에 당면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⑫ 예술활동 등 과외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였다.
⑬ 종교와 예배활동을 제외한 학생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⑭ 교과외 분야에서 우수자가 많았다. 그들은 단체의 장을 맡거나, 간부집단에 속하거나, 체육·연극·음악 분야 등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⑮ 현대적인 사회생활에 적응력은 비슷하였다.

5. 결 론

결론적으로 8년 연구의 결과는 진보주의 교육이 학습자의 사고력·사회적 행동·학습태도 등은 개선하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진보적으로 개선하여도 대학진학 후 학업에 아무 지장이 없음을 밝혀졌다. 즉, 8년 연구는 대학에서의 성공은 고교의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공부를 위해 준비하는 경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고교와 대학의 관계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은 보다 항구적인 기초 위에 정립될 수 있으며, 또한 고교의 교사진과 대학의 교수진들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끝으로, 8년 연구의 결론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학교의 졸업생들은 대학공부와 생활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둘째, 대학이 정한 교과목과 단위에서 벗어나 대학 입학준비를 하더라도 대학 입학준비생들의 대학 준비도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셋째, 실험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단행한 6개 실험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년 연구 보고서가 출간된 1942년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그 후는 전쟁 복구에 전력하다보니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다.

[참고문헌]

김복영 외 7인(2001).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서울 : 원미사.

김재춘・박소영 역(2002).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8년 연구 이야기. 서울 : 교육과학사.

박도순・홍후조(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 문음사,